

KBO “올 무조건 8개 구단 운영”

■ 긴급 이사회 합의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야구 8개 구단 사장은 올 시즌을 8개 구단으로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현대(家)에서 현대 유니콘스 구단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KBO는 22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일식당에서 8개 구단 사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 간담회를 열고 ‘현대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상우 KBO 총재는 사장단에 지난해 주 능함과 유니콘스 구단의 대주주인 하이닉스반도체 간 인수 협상 및 불발과

‘현대家’에 유니콘스 지속 지원 요청키로 하이닉스반도체 “매각 방침에 변경없다”

정을 설명한 뒤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를 마친 하이닉스 KBO 사무총장은 “현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단 사장단은 올 시즌을 8개 팀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현대 구단 운영방안과 규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는 31일 열리는 공식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현대에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

으로 도와줬던 현대가 다시 한번 유니콘스를 살릴 수 있도록 접촉할 계획이다. 현재 정몽준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과 계속 통화하고 있으며 지원금을 분담했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찾아뵙고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 총장은 또 “31일 이사회에서 현대가의 지원 방안 및 제2, 3차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다. 오늘은 간담회로서 여러 가지 얘기만 오갔을 뿐 확정된 사안은 없다. 현대가 선수단에 첫 급여를 지급하는 2월 25일을 유니콘스 구단 존폐의 D데이로 삼고 그 전까지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의 대주주인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날 ‘현대 유니콘스 구단을 무조건 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 홍보팀 방민호 부장은 “국내 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현대(家) 계열사든 모든 기업을 막론하고 유니콘스 구단 인수에 관심 있는 곳이 나타나면 성실성의 협상을 나설 것”이라며 매각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병현 불안

콜로라도, 잇단 투수 영입...선발 입지 좁아져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투수 김병현(28·콜로라도 로키스)이 소속팀의 잇단 선발 요원 보강으로 설 자리가 크게 좁아지게 됐다.

미국 콜로라도주 지역 신문인 덴버포스트와 로키마운틴뉴스는 22일(한국시간) 콜로라도가 자유계약선수(FA) 선수인 브라이언 로렌스(31)와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내년 구단 옵션이 포함된 1년 계약이다. 올 시즌 콜로라도의 선발 한 자리를 예약했던 김병현으로서는 입지 축소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콜로라도는 제프 프란시스, 애런 룩, 조

시 포그, 김병현, 테일러 버크홀츠 등 기존 5명의 선발 요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 13일 2대 1 트레이드로 우안 로드리고 로페스(32)를 영입했다.

이어 우안 로렌스까지 계약해 선발 경쟁은 더욱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로렌스는 지난 200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리며 선발진 주축으로 활약했던 선수.

지난 해 어깨 수술 여파로 단 한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하고 FA로 풀렸지만 통산 49승61패, 방어율 4.11를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혼신의 수비

김 클리스터스(벨기에)가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4라운드(16강전)에서 다니엘라 한투코바(체코)의 공격을 시력을 다해 막아내고 있다. 이날 경기는 클리스터스가 6-1, 7-5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이동국 미들즈브러행 ‘이적료 無’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행을 눈앞에 두고 이적료 문제로 진통을 겪어온 이동국(28·포항 스틸러스)의 입단 협상에 가닥이 잡혔다.

김현식 포항 사장은 22일 “아직 사인을 한 것은 아니다”는 전제를 깔고 “다만 이동국을 이적료 없이 보내며 계약이 끝나면 포항으로 복귀한다는 큰 원칙에 양 구단이 서로

양해한 결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즉 무상으로 이적하되 국내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포항으로 온다는 조건이 붙은 셈이다.

애초 포항은 최소 150만 유로(약 18억 원)의 이적료를 제시한 반면 미들즈브러는 계약 기간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들어 이같은 금액에는 난색을 표시해 협상에 어

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동국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한 포항이 한 발 양보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신 포항은 이동국이 미들즈브러에서 다른 팀으로 옮길 경우 발생하는 이적료는 두 구단이 50%씩 나눠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목전의 금전적 손실을 향후 이적료를 통해 보전받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단, 이적료의 하한선과 미들즈브러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발생할 선수와 구단 또는 두 구단 간 분쟁에 대비해 세부 조건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선출동

- 23일(화)
 - ▲MBC 신인왕전 복싱(14:00·MBC ESPN)
 -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신세계-삼성생명)(16:50·SBS스포츠)
 - ▲호주오픈 테니스 8강전(17:30·MBC ESPN)
- 24일(수)
 - ▲칼링컵 축구(철시-워킹 원더러스)(04:35·KBSN SPORTS)



찬호 표류

FA 후 러브콜 구단 없어...소속팀서도 시큰둥

한국인 메이저리거 ‘말형’인 자유계약선수(FA) 박찬호(34·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새 동지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시즌 후 5년 간 6천500만달러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이 만료된 뒤 다시 FA로 풀린 박찬호는 ‘평범한 선수’를 선언하고 러브콜을 기다렸지만 해가 바뀌고 스프링캠프 개막이 다가오는데도 계약 소식이 없다. 잔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친정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최근 노장 데이비드 웰스(44)를 영입하면서 선발진의 마지막 한 자리를 채워 박찬호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사실상 막혔다.

이제 다른 구단을 알아봐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박찬호가 FA로 큰 매력 을 주지 못해 스프링캠프에 ‘초청선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앞서 박찬호의 에이전트인 스티브 보라스는 ‘괴물’ 마쓰자카 다이세이가 거액 몸값을 받고 보스턴 레드삭스에 입단할 때 박찬호를 마무리 투수로 ‘귀퉁이’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이 아닌 볼펜 투수로 계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한 때 박찬호의 계약 가능성이 제기됐던 샌프란시스코가 후보로 떠오른다.

지난 해 박찬호의 재기 투혼에 강한 인상을 받았던 브루스 보치 전 샌디에이고 감독이 새 사령탑을 맡은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05년 3년 간 2천100만달러에 계약한 마무리 아만도 베니테스(35)가 있다.

하지만 베니테스는 지난 해 무릎 부상 여파로 4승2패, 17세이브에 그쳐 큰 믿음을 주지 못했다.

박찬호는 여전히 선발로 활약할 팀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공인중개사

2·1 조건도 개입

주책관리사

1위

광주고시학원

☎ 222-800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대 합격자 배출학원

2월 1일 기출문제 출제예견

입격률1위! 새동 행정고시학원 ☎ 361-8111

2007년 中國 명문대학 입학반 모집

2007년 9월 중국대학 1,2,3학년 입학 및 연수

중국대학 입학 설명회

1월 27일(화) 19:00~21:00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11-1

2008년 5월 보고서 대비

중국대학 입학 설명회

1월 27일(화) 19:00~21:00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11-1

중국대학 입학 설명회

1월 27일(화) 19:00~21:00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11-1

중국대학 입학 설명회

1월 27일(화) 19:00~21:00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11-1